

From : Kimbyung

Date ; September 7, 2012

Subject : FW : 아름다운 기도

아름다운 기도 - 송길원 교수 -

나와 아내는, 달라도 너무 다르다,
나는 오른손잡이 인데, 아내는 왼손잡이다.
그래서 습관에 따라,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.

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, 신경을 건드린다.
거기다 나는 종달새 형이다.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.
늦잠을 자면,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.

그런데 내 아내는, 올빼미 형이다.
밤새 부엉부엉 하다가,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.
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.



<http://www.ebody.bz/>(2006summer 메인イラスト)

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, 마신 컵은 즉시 씻어 둔다.
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, 언제 해도 할 일이며
제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말이다.

그런데 내 아내는, 그게 안 된다.
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, 꺼내 쓰다가
한꺼번에 씻고, 몸살이 난다.

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(style)이다.
그런 나와 달리, 아내는 「떠나야 할 시간에」
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.

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(可觀)이다.
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, 다 열어 놓고 있다.
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.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.

“아니,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
향(香) 다 날아가고 뭐 땀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
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. 확 부어버려.
맹물 부어줄까 그래.”



2006.8月号 美的 (小学館)

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
나중에는 견디다 못해,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

“여보,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, 뭐 때문에
그 바쁜 와중에,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 놓고 나오셨겠어?
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, 정리정돈이
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
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
당신 부활 믿어. 부활 믿냐고?”

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
하늘의 음성을 들었다.

"야, 이 자식아
잘하는 네가 해라
이놈아 안 되니까 「붙여 놓은 것」 아니냐”

너무 큰 충격이었다.
생각의 전환, 그렇게 나 자신을

아이스 브레이킹(Ice breaking)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.



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있다
나의 은사(gift)는 무엇일까?

하지만 뜻밖에도
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.
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, 바로 그것이
자신의 은사인 것이다.

일테면, 내 아내는
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, 종이 나부랭이가
나뿜구는데도,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.
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.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.

하지만 나는, 금방 불편해진다. 화가 치민다.

이 말은,내가 아내보다

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.

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
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 놓고,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
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. 은사는, 사랑하는
사람을 「섬기라고」 주신 선물이다.

바로 그 때,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.
내 아내한테는,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
나에게는,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. .



그때부터, 아내를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다.
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 있으면, 내가 다가가 물었다

"여보, 이거 다 썼어?"

그러면 뚜껑 달아도 되지. 이거는?
그래, 그럼 이것도 달는다."

이제는 내가, 뚜껑을 다 달아준다.
그런데 놀라운 일은,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
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, 서서히 변해 가는 것이다.

잘 달는 정도가 아니라
얼마나 세게 잠갔던지, 이제는 날 더러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.
아내의 변화가 아닌, 나의 변화(變化).



그렇게 철들어진
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.

제가 젊었을 때는
하나님에게, 세상을 변화시킬만한

